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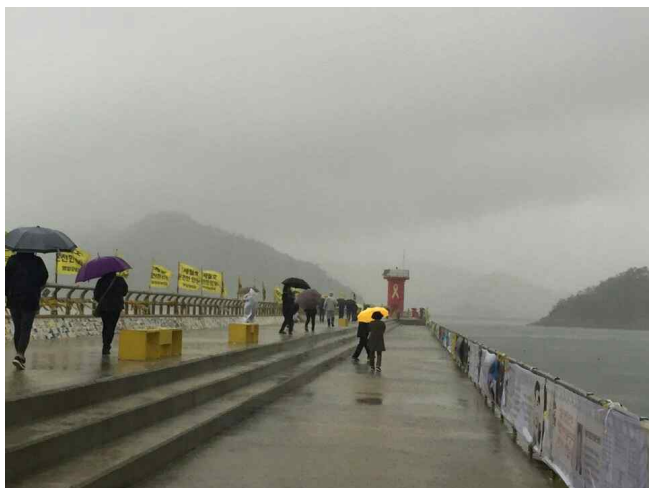
2016년 04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세월호 2주기, 진도 팽목항 방문 (04.16)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채 피지 못한 단원과 아이들이 왜 진도 앞바다에서 살아나오지 못했는지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분들이 부단히 싸웠음에도 1년 전 다녀왔던 그 때 그대로 시간은 멈춘 듯 합니다. 시간 멈춤의 상징과 같은 진도 팽목항에 연구원 행정실장과 연구실장, 그리고 김정화 회원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 하지만 적어도 1년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빌어 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안내

: 오는 6월 26일(日)~7월 1일(金), 5박 6일간 “윤상원 교수와 함께하는 해외역사탐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역사탐방은 러시아 한인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윤상원 교수(전북대 사학과)와 함께 진행합니다. 윤상원 교수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 한인독립운동사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을 비롯해 수십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전후 러시아 한인 사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일정을 기획하였고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현지에서 생생한 러시아 근현대사와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투사의 흔적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답사를 시작으로 향후 6회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서유럽까지 진행될 유라시아 횡단 해외역사탐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4월 29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참가경비는 150만원이며 4월 29일까지 신청하실 때 45만원을 선입금하시고, 5월 31일까지 잔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505-13-0345110(전북)

	도시	답사지
1일	인천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독수리전망대 조명희 기념비 신한촌 울 브린너 생가 해안 - 노을과 술
2일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슬라비얀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여객터미널, 혁명광장, 잠수함박물관, 고려사범대학, 시장과 백화점 <한인마을> 아지미, 시지미, 포세트 치신허 - 최초마을 크라스키노(연추) 등등
3일	슬라비얀카 햇산 크라스크노 우수리스크	두만강철교(한중러 국경) 햇산역 라즈돌리노예(하마탕) 88국제여단 숙영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4일	우수리스크	이상설 유허지, 발해성터, 최재형 고택, 전로한족총회 개최지, 고려사범전문학교 등 고려인 유적 러시아정교당, 4월참변 유적지 등 러시아 유적
5일	하바롭스크	한인사회당 관련 유적지 김일성부대 숙영지 볼로차예프전투 유적지 하바롭스크 도시 관광 아무르강 유람
6일	하바롭스크 인천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해를 기약...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

일 시	내 용	비 고
4월 19일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5월 18일	꽃잎	
6월 25일	태백산맥	
7월 中	답사(추후 계획공지)	
8월 15일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쉼들러 리스트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

일 시	내 용	비 고
5월 21일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8월 20일	붕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9월 24일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10월 22일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11월 19일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12월 17일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4월 18일(月) : 주간회의
- 04월 21일(木) : 서울 이임재 회원 연구원 방문 예정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江南逢李龜年 강남에서 이귀년을 만나

岐王宅裏尋常見(기왕택리심상견)	기왕의 집에서 노상 보았고
崔九堂前幾度聞(최구당전기도문)	최척의 당 앞에서 몇 번 노래 들었던가?
正是江南好風景(정시강남호풍경)	지금은 강남이라 경치가 좋은 때로
落花時節又逢君(낙화시절우봉군)	꽃이 지는 시절에 그대를 또 만났구려.

###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안사(安史)의 난으로 사방을 유랑하다가, 장강의 배 위에서 숨을 거뒀다. 이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시는 이백과 달리 웅혼하면서도 침통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 ■ 감 상

- 이귀년은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당대의 명창이다. 그는 일찍이 궁궐 안에서 현종과 양귀비를 위해 이백이 지은 「청평조사」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기왕(岐王)'은 예종(睿宗)의 아우였던 이범(李範)으로, 문학을 사랑하여 왕유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던 인물이다. 두보도 장안에서 살던 시절에 그의 저택을 자주 출입했었다. '최구(崔九)'는 전중감(殿重監)을 지냈던 최척(崔滌)으로, 그 또한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당대의 권력자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개원성세(開元盛世)'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두보가 죽음에 임박해서 초라하고 누추한 물골로 만난 사람은 명창 이귀년이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이귀년마저 이제는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강남땅까지 쫓겨 온 신세이다. 이제 떠돌이 신세로 두 사람이 만났다.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흘러오셨는가?' 하는 탄식 속에, 서럽게 두 손을 맞잡은 늙은 시인과 명창이다. 두 사람 모두 꽃이 지는 '낙화시절(落花時節)'의 만남인데, 마지막 구절의 '우(又)'란 글자 속에 담긴 깊은 회한과 비애가 길고 긴 여운으로 남는 작품이다.

## ■ 역사속의 오늘

### ○ 사북의 봄..1980. 4. 21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가 있는 정선 사북읍. 원래는 석탄의 고장이었다. 2004년 10월 29일 채탄(採炭)을 마지막으로 11월 1일 문을 닫기 전까지는.

지금은 밤에도 네온싸인이 번쩍이는 카지노의 땅으로 바뀌었지만 1980년 당시, 사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검은 얼굴에 검은 차림이었다. 검은 얼굴, 검은 손을 하고서 탄광을 나선 이들은 탄을 캐는 산업 전사. 그들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의 광부들이었다.

당시 사북 동원탄좌에서 캐내는 석탄은 전국 생산량의 9%. 광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교대로 개미집 같은 막장을 드나들었다. 동원탄좌는 타 업체에 비해 정년도 빨랐다. 정년 45세로 묶여있는 동원탄좌에서 밀려나면 그들은 하청 탄광으로 몸을 옮겼다.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탄을 캐고 나르는 일 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싶어 진폐증에 걸렸어도 애써 병증을 숨기며 일을 했다.

살아남는 일이 절박한 시절. 대형 탄광인 동원탄좌에 다니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여겼다. 그런 이유로 목욕탕 시설은 언감생심, 먹을 물도 나오지 않는 성냥갑 같은 사택에서 견뎌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광부들은 미래를 품고 살아갔다.

그러던 탄광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났다. 1980년 4월 21일이었고, 신군부의 총칼이 서늘하게 빛나던 봄날이었다. 이른 바 '사북사태'다.

민주화의 봄이 왔다지만 모두들 숨죽이고 있던 그때, 따스한 봄날 광부들이 채탄을 거부하고 경찰과 마주섰다. 사건의 발단은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인 이재기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미 광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어용노조 지부장이었다. 광부들은 사북사태 이전부터 노조 지부장이재기의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경찰과 사북읍사무소가 약속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자 광부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지부장인 이재기는 경찰 개입을 요청했고 경찰 50여명이 동원탄좌로 출동했지만 숫적으로 밀린 경찰이 지프로 광부들을 치고 달아났다.

회사 편을 드는 어용노조가 사북사태의 불씨를 제공했다면, 뇌관을 폭발시켜 거대한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찰이 제공했다. 사북사태의 발단은 어용노조와 싸우려는 노동자의 저항,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소박한 요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경찰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인권을 무시당한 노동자들로부터 불만을 샀고, 결국 이러한 불만이 사북에서 경찰 공권력을 몰아내고 지역을 장악한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어용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한 싸움이 경찰과의 싸움으로 전이 되면서 많은 부상자와 구속자를 냈다.

4월 22일 '안경다리 전투'에서는 경찰의 사망자도 나왔다. 최루탄을 쏘며 동원탄좌로 진입하던 경찰에 맞서 광부들은 사북역 태백선 철로 위에서 돌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사북사태 당시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안경다리. 노동자들은 다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다.

22일 오후 칼빈총으로 무장을 한 경찰은 광부들에게 대패했다. 경찰은 사북을 떠났고 그때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사북은 광부들의 해방구였다. 광부들은 고한과 증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나 신군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23일 급기야 공수부대가 사북에 투입된다는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해졌다.

당시 강원도지사와 도경국장이 '항쟁'지도부(당시 신군부에 처벌받은 이들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현재 사북항쟁동지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 시간 공수부대는 원주에 있었으며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였으나 당시의 권력 구도로 미루어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항쟁 지도부는 동원탄좌에 1,000여점의 소총과 사북 전체를 날리고도 남은 다이너마이트 60여톤이 있다며 공수부대가 투입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협상단에게 알렸다.

당시 사북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자와 피해가 났을 것이 분명했다. 협상단은 그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23일 낮부터 시작된 협상은 다음날 새벽1시가 되어서야 끝을 맺었다.

지도부는 억류해 놓았던 이재기 노조위원장의 아내 김순이씨를 경찰에 인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24일 오전이었다. 상황은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다. 광부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으며 사북거리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수습되었다.

합의 당시 노동운동 관련자 선처와 노동인권 개선을 약속했으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은 4월 27일부터 체포 대상자 조사에 들어갔다. 급기야 5월 6일에는 회의를 핑계로 노동자 대표들을 모은 뒤 체포하는 수법까지 동원되었다.

계엄사령부는 8월 4일 81명을 계엄군법회의에 회부했으며 주동인물 이원갑·신혁이·신경·조행웅·신천수 씨 등 31명을 구속했다. 군부 조사실로 끌려간 81명은 각종 고문과 구타로 석방하자마자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동안 병치레를 했다.

1980년 사북의 봄은 계획된 노동운동이 아니었다.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탄광기업주, 노동자는 외면하고 회사 편이 된 노조간부, 회사와 노조간부만 두둔하면서 노동자를 멸시한 경찰의 삼박자가 빛은 우발적 사태였다.



2015년 4월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열린 사북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사북 탄광촌은 이제 탄광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대신 강원랜드가 들어섰다. 탄광촌은 카지노 마을로 변했지만 여전히 사북은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지도부인 이원갑, 신경 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이래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지만 사북이 견뎌야했던 오욕의 세월을 참회하는 이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목욕탕도 없이 검은 손, 검은 얼굴 그대로 성냥과같은 사택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에 부당한 공권력 집행과 이후 신군부의 불법적인 연행 구금에도 불구하고 사북을 바라보는 시선은 '항쟁'이 아니라 '폭동', '난동'의 지역으로 굳어졌다.

카지노의 네온싸인 뒤에 가려진 사북은 여전히 차가운 봄을 지나고 있다.